

BTS, 8조8000억 NFT 시장에 뛰어든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굿즈를 NFT(대체불가토큰)로 선보일 전망이어서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영역 확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24일 온라인 콘서트 'BTS 퍼미션 투 스테이지' 무대에 올라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모습. 사진제공 | 빅히트 뮤직

팬덤에겐 세상 하나뿐인 가치 NFT 시장 작년보다 35배 커져 메타버스 등 디지털 사업 위해 모기업 하이브, 두나무와 맞손 미국에 NFT 법안설립도 논의 중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8조 8100억원 규모의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디지털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새 무대 삼아 콘텐츠를 확장하고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27일 연예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다양한 '굿즈'를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로 선보인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모기업 하이브가 이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등 신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위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와 손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BTS 굿즈 NFT=세상 하나뿐인 희소 가치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복제가 불가능한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해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이다. 디지털 공간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세상 하나뿐인 콘텐츠 자산'으로 통한다.

미술 관련 콘텐츠에서 시작된 NFT는 최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NFT 전문 분석사이트 논핀블릿닷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NFT 거래 규모는 75억438만달러(8조815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배나 커졌다. 특히 엔터테인먼트계는 음악과 영상 등 콘텐츠를 복제할 수 없는 NFT로 선보여 IP(지적재산권)를 보호하고 가치도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아이'라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팬덤을 보유한 방탄소년단은 굿즈를 NFT로 내놓음으로써 영역을 더 넓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복제불가능한 '희소성'을 통해 굿즈의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방탄소년단은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매개를 갖는다. 팬들도 방탄소년단의 '세상 하나뿐인 콘텐츠 자산'을 소장한다는 의미를 품게 된다. 온라인상 재판매도 가능해 일정한 경제적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NFT 통한 디지털 무한의 세계로

이를 위해 하이브는 두나무와 주식 맞교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양측은 이와 관련해 "확정된 건 없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제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두나무는 앞서 올해 6월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 박진영의 JYP엔터테인먼트와 NF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제휴를 맺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JYP

스리식스티라는 자회사를 세워 NFT와 IP 기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이브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다양한 자사 콘텐츠의 디지털 수익성을 강화하고, 또 하나의 사업 구조를 추가하게 될 전망이다. 두나무도 방탄소년단 팬덤의 NFT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특히 두 회사는 미국에 NFT 관련 법안을 함께 세우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융합해 새로운 차원의 콘텐츠를 선보이는 메타버스 사업으로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NFT가 메타버스 안에서 '유저의 사유재산을 증명하는 역할이자 경제활동의 도구'(KOTRA 이지현 무역관)이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 팬덤을 겨냥한 새로운 무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블랙핑크 '유엔'서 기후 위기 대응 메시지



블랙핑크

그룹 블랙핑크가 기후 위기에 맞서는 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전 세계 13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막을 올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위한 행동에 나서자는 메시지를 밝힌다. 이들은 11월1일과 2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주재하는 정상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내놓는다. COP26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구 온도를 최대 1.5°C로 억제하자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달성을 논의하는 장이다. COP26 홍보대사인 블랙핑크는 최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구글의 기후변화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포브스, 에스파 빌보드 200 20위 성과 호평



에스파

그룹 에스파(aespa)가 미국 유력 경제전문지 포브스로부터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2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포브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에스파의 첫 앨범 '세비지'(Savage)에 대해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20위로 진입해 사상 가장 빠르게 성공한 한국 걸그룹 앨범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포브스는 이어 "데뷔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들은 이미 한국을 훌쩍 넘어선 성공을 거뒀다"면서 "중요하고 거대한 성취"라고 극찬했다.

'자산어보', 평론가들이 뽑은 최고의 영화



이준익 감독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가 영화평론가들이 뽑은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다. (사)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제41회 영평상 수상자(작)를 발표하고 '자산어보'를 최우수작품상에 꼽았다. '자산어보'는 설경구의 남우주연상과 각본상(김세경 작가), 국제비평가연맹 한국본부상 등 모두 4관왕에 올랐다. 감독상은 '모가디슈'의 류승완 감독이 차지했다. '모가디슈'는 허준호에게 남우조연상을 안겨주며 촬영상(최영환), 음악상(양준석) 등 4개 부문상에 올랐다. 여우주연상과 조연상은 '제자매'의 문소리와 김진영이 각각 품에 안았다. '소리도 없이'의 홍의정 감독은 신인감독상 수상자가 됐다.

박군,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가수 고소



박군

성추행 등 성폭력 의혹에 휘말린 가수 박군이 관련 주장을 내놓은 가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27일 소속사 토탈셋은 "박군은 가수 생활에 성실하고 진실 되게 임해 왔으며 어떠한 성희롱, 성추행을 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온라인에 올린 가수 A를 "26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는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특수부대 출신 후배 가수 P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특수부대 출신 가수'가 박군이라는 의혹이 나오자 박군은 이를 강력 부인했다.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재판에 넘겨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21·장용준)이 무면허운전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27일 노엘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엘은 9월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박해수 '넷플릭스 사나이'

'오징어게임' 이어 '야차' '수리남' '종이의 집' 리메이크작 주연까지

연기자 박해수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몰고 온 '오징어게임'에 이어 넷플릭스와 또 다신 인연을 맺어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영화와 드라마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주역으로 잇따라 역할하면서 '오징어게임'으로 이끌어낸 국내외의 관심을 끈을 놓치지 않게 됐다.

박해수는 영화 '야차'와 드라마 '수리남' 등 작품으로 넷플릭스 플랫폼을 타고 또 다시 전 세계 시청자와 이용자를 만나게 된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의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인 스페인의 '종이의 집'을 리메이크하는 무대에도 나선다.

영화 '야차'는 중국 선양(심양)을 배경으로 한 첩보물로, 국가정보원 첩보요원과 중국으로 좌천된 검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박해수는 검사 역을 연기하며 설경구와 호흡을 맞춘다.

'수리남'은 영화 '범피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의 윤종빈 감독이 박해수와 함께 촬영, 황정민 등을 앞세우는 드라마이다. 남미의 국가 수리남에서 마약왕이 된 한국인의 이야기를 그리는 6부작 시리즈이다.

'야차'와 '수리남' 등은 장르적 색깔이 뚜렷한 작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전 세계에 공개



박해수

된다. 박해수는 그동안 개성 강한 외모와 선 굵은 연기로 시청자와 관객을 만나왔지만,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이번 '오징어게임'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한 그는 '야차'와 '수리남'으로 이어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다시 한 번 국내외를 무대 삼게 된 셈이다.

또 그는 '종이의 집'의 리메이크작에도 주연으로 나선다. '종이의 집' 역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며 시즌5까지 공개됐다. 한국 리

메이크작은 박해수를 비롯해 유지태, 김윤진 등이 주연한다. 천재적인 전략가와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인물들이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인질극 이야기를 그린다. 각각 도시 이름을 따온 캐릭터들 사이에서 박해수는 '베를린'으로 불린다.

이에 앞서 박해수는 30일 첫 방송하는 OCN 토일드라마 '키마이라'에 먼저 나선다. 극중 강력계 형사인 그는 프로파일러와 외과의사가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 실체를 쫓는, 일명 '키마이라'로 불리는 연쇄 폭발 살인사건 해결을 위해 뛰어든다.

이처럼 박해수는 '오징어게임' 이후 더욱 바쁜 행보를 걷게 됐다. 전 세계적인 인기 속에 미국 NBC 인기 토크쇼 '지미 킬런 쇼'에도 출연하면서 해외에도 이름을 알리게 된 그가 넷플릭스라는 유력 글로벌 플랫폼을 등에 업고 다시 한 번 주목받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오징어게임' 주역들 미국서 뭉친다

이정재와 특별출연한 이병헌 등 '2021 아트+필름 갈라'에 참석 넷플릭스 공동 CEO만남도 기대

넷플릭스의 최고 흥행작 '오징어게임'의 주역들이 미국에서 뭉친다. 이에 이들이 현지에서 리드 헤이스팅스·테드 서랜드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등 넷플릭스 고위 관계자들과도 만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주인공 이정재와 특별출연한 이병헌은 11월7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열리는 '2021 아트+필름 갈라'에 참석하기 위해 조만간 출국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행

사로, 두 사람은 그동안 여러 차례 참석해 왔다. 올해에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과 에이미 셰필드 등 영상·현대미술계의 유명 아티스트들도 참여한다.

이들과 함께 연출자인 황동혁 감독도 공식 초대받았다. 올해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과 에이미 셰필드 등 영상·현대미술계의 유명 아티스트들도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방송가 안팎에서는 이들 '오징어게임'의 주역들과 리드 헤이스팅스·테드 서랜드스 공동 CEO 등 넷플릭스 고위 관계자들이 만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7일 한 영화 관계자는 "넷플릭스 측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이들의 일정을



배우 이정재와 황동혁 감독 등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주역들이 11월 초 미국으로 떠나는 가운데 현지에서 리드 헤이스팅스(왼쪽)·테드 서랜드스 공동 CEO 등 넷플릭스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주의 깊게 염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에서 주역들이 모두 모이는 만큼 '오징어게임'과 관련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이 같은 관측은 '오징어게임'이 거뒀던 인 성과에도 기대고 있다. 9월17일 공개한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